스포츠동아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sportsdonga.com 10판
1위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2년 연속 1위



'날아라 슛돌이' 정형환 PD가 추억하는 12년전 이강인

"유상철 감독 이겼던 꼬마천재 경기에 지면 얼마나 씩씩거리던지…"



"저 때문에 형들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조금 미안합니다! 형들보다 2살 어린 제가 장난을 치고 까불어도 재미있게 받아주고,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도 안 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형들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강인 SNS 감사인사 중에서

2019 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의 쾌거를 이룬 20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 행사가 17일 낮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막내형' 이강인이 진행자의 질문에 웃으며 답변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2007년 KBS N 스포츠 '날아라 슛돌이'에 출연할 당시 모습.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사진출처 | KBS N 스포츠 '날아라 슛돌이' 방송화면 캡처

골포스트 맞히기 대결서 유상철 거뜬히 제쳐
드리블·패스·슈팅 1등…성인선수들도 감탄
지금처럼 말 잘하지 않아…과묵한 꼬마였죠
누나들 손 잡고 태권도장 가던 모습 선하네요

"과묵했지만 실력만큼은 독보적이던 소년이었다."

2019 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을 준우승으로 이끌고 골든볼(최우수선수)까지 거머쥐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힌 이강인(18·발렌시아)의 12년 전 모습이다. 2007년 방송한 케이블채널 KBS N 스포츠 '날아라 슛돌이'의 연출자 정형환 PD(현 콘텐츠월드 대표)는 당시 출연자였던 소년 이강인을 이렇게 기억했다.

정형환 대표는 18일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이강인은 당시 500여 명의 출연 신청자 가운데서 단연 눈에 띄었다"며 "최종 선정된 7명 중에서도 드리블, 패스, 슈팅 실력이 가장 뛰어났다"고 떠올렸다. 이어 "이미 차원이 다른, 비교대상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12년이라는 "너무 긴 세월이 흘러" 당시 상황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이강인에 대해서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정 대표에게 이강인은 "축구를 좋아하고, 또 정말 잘 하는 어린이"로 여전히 남아 있다. 그는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다"며 흥분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실력이 뛰어난 4명, 방송프로그램의 특성상 캐릭터로서 흥미를 안겨줄 수 있을 거라 판단한 3명의 어린이 등 모두 7명으로 출연진을 구성했다"는 정 대표는 "이강인은 실력으로 뽑힌 어린이 가운데에서도 독보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출연자 선발 심사에 나선 선수 출신들도 이강인을 보고 '무조건 1등이다'고 말했다"면서 "감독 역을 맡았던 유상철(현 인천 유나이티드FC 감독) 선수와 크로스바 맞추기 대결을 벌여 이길 만큼 감각이 뛰어났다"고 돌아봤다. 실제로 '날아라 슛돌이' 1차 오디션에서 이강인은 '수석'으로 합격해 방송에 출연했다.

정 대표는 이강인의 타고난 성격에 대해서도 술회했다. 그는 이강인이 "승부욕이 강해 경기에서 지면 씩씩거리긴 했지만 울지는 않았다. 말썽꾸러기도 아니었다"면서 "축구가 끝나면 누나와 태권도를 하러 가는, 정말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밝혔다. 16일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한 뒤 오히려 선배들을 위로하며 환하게 웃은 '막내' 이강인의 밝은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이강인은 대회 도중 또 준우승의 쾌거를 안은 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원팀'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겸손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어릴 때에는 말수가 별로 없고 의외로 조용조용했다"며 "냉정하게 말해 과묵할 정도였다"고 돌이켰다.

"당시 이가 빠졌던 모습을 빼고는 지금 얼굴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이강인을 바라보며 정 대표는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둘 걸 그랬다. '이런 사람'과 한 프로그램에서 만났다는 게 새삼 신기하고 또 영광스럽다"며 웃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U-20선수 배출 학교에도 포상금 ▶2면



3할 복귀 이정후 "비우니 터진다" ▶3면



신동미·허규의 알콩달콩 러브스토리 ▶14면



어른들이 빠졌다, 영화 '알라딘' 돌풍 ▶15면



